

“6월말까지 국정 5개년 계획 수립...사실상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위 공식 출범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헌관식을 열고 첫발을 내디뎠다.

문재인 정부가 조기대선으로 출범, 대통령직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은 만큼 국정기획위는 사실상 종래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정 목표와 비전을 정리하고,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국정과제화해 5개년 계획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견례를 겸해 열린 이날 제1차 전체회의에는 김진표 위원장과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윤호중 기획부와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외교안보·정치행정·사회·경제 등 6개 분과 위원들이 참석

김진표 위원장 “부처간 협력...당·정·청 조화 중요”

“국민주권 참여 소통기구 운영”...대변인에 박광은

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공약과 5년 동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들을 정리하고 다듬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5개년 계획에는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와 부처 간 역할 분담 등이 세부적으로 담길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6월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자문위 차원에서 마련하고 7월 초에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부처 간 어깨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 당과 정부, 청와대가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는 적극적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국민참여 소통기구를 운영하겠다”며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또 정례브리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이나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민주권 실현을 위해 국민참여 소통기구를 운영하겠다”며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또 정례브리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이나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또 “자문위원들이 혹사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공식회의의 적극적 협조를 받기 어렵다.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달라”며 “함께하는 공직자 여러분도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소명을 갖고 심기일전해 새 나라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24~26일 정부 부처들로부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은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자문위 브리핑실에서 1차 전체회의의 결과를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어느 부처의 보고를 먼저 받을지 등은 추후 조율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자문위 전체회의는 주 1회 열고 필요하면 수시로 열 수 있다. 아울러 매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직접하거나, 이외의 경우 모든 발표는 대변인을 통해서만 한다. 대변인 공식 발표 이외의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처와 정당 간 조율되기 전인 실익은 정책들이 분과별 회의 진행 중 언론을 통해 경쟁적으로 보도될 경우, 새 정부 출범에 부담을 주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장관급 4명...호남 명문 장하성 집안

조부 세대는 독립운동가

형제들은 장관·교수

숙부 장재식 전 산자부장관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집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관급만 4명을 배출한 호남 지역 명문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우선 장하성 실장처럼 ‘하’자 돌린 형제들의 상당수가 학자들. 장 실장의 누나는 2005년부터 3년간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장하진 전 장관이다. 동생인 장하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광주대 교수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 막냇동생인 장하원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2004년 열린우리당 정책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또 ‘사다리 건너치기’ 등 다양한 경제학 책을 써 유명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사촌 동생이며, 장하준 교수의 진동생인 장하석씨도 케임브리지대 대학 과학철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장 실장의 집안은 이전부터 호남지역에서 알아주는 명문가다.

장 실장의 증조할아버지는 구한말 신안 장산도 일대 염전을 일구며 논밭

을 가진 만석꾼 부호 장진섭이다.

그의 아들이자 장 실장의 할아버지들인 1세대는 독립운동가들이다. 장 실장의 큰 할아버지인 장병준씨는 일본 니혼대 법과를 나와 상해 임시정부에서 외무부장을 지냈다.

장 실장의 할아버지인 장병상씨는 서울 보성전문을 거쳐 일본 메이지대를 졸업했고, 셋째 장종재씨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에 참가했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고문을 당해 어린 나이에 사망했다.

장 실장의 작은 아버지이자 장하준 교수의 부친은 장재식 전 산자부 장관이다. 고등고시 7회로 관료생활을 시작해 국세청 차장과 주택은행장을 역임했고 1992년 민주당 소속으로 14대 국회의원이 된 뒤 16대까지 3선을 지냈다.

또 장 실장의 큰아버지는 장정식 전 남대 의대 교수 출신이며 셋째 작은아버지인 장영식씨는 장면 정부에서 경제 비서관을 지낸 뒤 미국 뉴욕주립대 교수와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지냈다.

장 실장의 아버지 장총식씨는 한국은행을 다니다 도의원을 지냈으며, 한국추진위원과 한국닉스의 대표를 지낸 기업 경영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법정에 서는 ‘피고인 박근혜’

오늘 오전 10시 언론 공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 석어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해제한 모습으로 취재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방정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언론을 통해 이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도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개정 직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을 허용했다.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첫 재판 준비 절차에 나온 모습도 언론에 공개됐다. 법원은 차관액과 장시호씨 재판도 각각 1차례씩 촬영을 허가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하루 앞둔 22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 구치소 앞길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놓아둔 꽃과 깃발들이 따가운 햇볕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 전문에 5·18 정신 포함 찬성” 75%

전국 1천명 설문

국민 4명 중 3명은 헌법 전문(前文)에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포함시키는 데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가 모바일리서치 전문업체 오피스베이에 여론조사를 의뢰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는 지난 18일 취임 후 처음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정신

을 헌법 전문에 담아 광주정신을 헌법에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이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실제로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20~21일 단순 무작위 추출 방식에 따라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성별로 고르게 전국 1000명에게 물었다. 응답자의 45.5%는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는 데 대해 ‘매우 찬성한다’고 밝혔다. 29.5%는 ‘찬성하는 편이다’라고 했다. ‘반대하는 편이다’와 ‘매우 반대한다’는 각각 5.0%, 2.8%였다.

한상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킨다면 국민이 잘못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는 의지와 가치를 담아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0% 포인트다. /*이종희기자 golee@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50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일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가 주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보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장 / 토지 / 기타

1.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녹지 담745㎡ 매3,659만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원로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종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항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치평동 상가 매매

- 상무나이트 옆 수림상가
- 10층 중 10층 795㎡(250평)
- 임대가(5000만/350만)
- 감정/시세 8억 7700만
- 급매 7억 7000만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33평)
- 교육환경 최상
- 시세 4억 3000만
- 매매 4억 1500만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28평)
- 임대중(400만/월 47만)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5900만

문의 010-9203-6161